

백마산 특혜 의혹 수사... '왜'는 모두 빠졌다

경찰이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 김종식(68) 전 광주시 서구청장을 비롯, 전·현직 공무원 12명과 구유지 매입자 등 13명을 무더기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유지를 헐값에 매각해 서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적용했지만 세간의 의혹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쪽'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일각에서 사건 의혹을 해소할 '왜'가 모두 빠지는 등 부실했다는 지적도 거세다.

◇왜 무리하게 매각했나=광주서부경찰은 구청사 부지 마련을 위한 예산 마련이라는 급박한 매각 사유가 사라졌고 입찰자금이 300억원이나 있었음에도 구유지를 헐값에 매각해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적용, 김 전 청장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백마산 구유지) 매각 추진은 구 재정을 악화시킨다. 장기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제값을 받아야한다'는 담당 공무원이 제출한 문서

?

**匾 잉여금 300억 있는데 '재정열악' 주장
공무원들 반대에도 무리하게 매각 추진
건축주에 승마장 허가 취득 편의 제공
수사과정 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안해**

경찰, 김종식 전 청장 등 13명 기소 의견 송치

도 확인했다.

김 전 청장은 그러나 직원들을 다그쳐 지난 4월28일 매각을 마무리했다. 최종 입찰 예정가격(22억17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14억6000만원)의 58%, 89% 수준인 13억여원의 헐값에 백마산 구유지를 매각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광주시의 감사와 서구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경찰은 도대체 왜 김 전 청장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의혹은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수사 개시 전 제기했던 내용에서 단 한 줄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만하

승마장 건축 허가 가능 여부를 물어봤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김 전 청장과 해당 건설업체간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이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서 밝혀낸 것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김 전 청장 임기 말에 백마산 구유지 매각(4월 28일)부터 승마장 건축허가(6월 27일)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이 배경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없다.

결국 경찰은 광주시의 서구의회가 감사 등을 통해 제기했던 내용을 확인한 것 외에 김 전 청장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등 핵심 의혹 규명에는 실패하고 수사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김 전 청장은 "김 전 청장에게 편의 제공했나=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백마산 구유지를 매입한 J건설 측의 승마장 건축 허가 신청 전, 김 전 청장이 토지형질 변경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거나 담당 공무원을 집무실로 불러

다.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관련 계좌 추적 등을 하지 않아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2년 거처 10년 상환 짜리 지방채 162억원이 있지만 구 예산은 충분했다. 각 과 사업도 원활하게 집행됐다"는 회계 담당 공무원의 진술만 확보한 게 고작이다.

◇왜 건축주에게 편의 제공했나=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백마산 구유지를 매입한 J건설 측의 승마장 건축 허가 신청 전, 김 전 청장이 토지형질 변경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거나 담당 공무원을 집무실로 불러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광주·전남 '로드킬' 연 100건 이상 발생 '유도율타리' 설치는 전국의 4.6% 불과

최근 5년 923건 집계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어 죽은 동물이 923마리로 집계됐다.

31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로드킬'로 죽은 동물은 ▲2010년 165마리 ▲2011년 256마리 ▲2012년 202마리 ▲2013년 105마리 ▲2014년 120마리 ▲2015년 상반기 75마리 등으로 파악됐다.

해마다 100마리 넘게 치어 죽고 있는 것으로, 동물별로는 고라니가 559마리(6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너구리(227건)·삿(34건)·멧돼지(28건)·멧토끼(26건)·족제비(21건)·오소리(1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삿은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호

종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동물 보호를 위해 도로로 진입을 막는 유도 율타리 설치나 생태통로 설치는 미흡하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각 도로별 유도율타리 설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설치된 광주·전남지역 유도율타리는 전국(6만8642m)의 4.6%(3213m)에 불과했다. 생태 통로도 부족해 고창~담양선에는 전용 생태통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1억5000만원을 들여 고창~담양선에 터널형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등 호남선, 순천~완주선에 생태통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남편 외도 의심 엄마가 8개월 딸 버려

동부경찰, 지하철 역 유기 혐의 10대녀 입건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 10대 아내가 생후 8개월 된 딸을 지하철 역에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 아빠는 지하철 역사를 등을 돌리며 아이를 찾고 다니다 경찰서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광주동부경찰은 31일 생후 8개월 된 딸을 지하철 역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박모(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양은 지난 30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역 출입 통로에 설치된 모래 적재함에 잠들어 있는 자신의 딸을 두고 간 혐의다.

박양은 이날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 최모(23)씨가 "다른 여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부부 싸움을 한 뒤 아이를 안고 집을 뛰쳐나와 이 같은 것을 저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을 나온 이후 발견된 대로 견다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지하철 역사에 잠든 아이를 남겨 두고 혼자 떠났다는 것이다.

버려진 아이는 5분여 만에 지하철 이양객에 의해 발견된 뒤 인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로 옮겨졌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찾기에 딸을 버린 박씨는 경찰의 거듭된 회유 문자를 받고 이날 밤 늦게 경찰서를 찾아왔다.

박씨는 경찰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부부싸움 한 뒤 찾기에 아이를 길에 버렸다. 그러곤 남편에게 아이의 위치를 알렸으며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며 후회했다"고 진술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수능 원서 접수 시작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별관에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2일) 응시생들이 진지하게 원서접수를 하고 있다. 접수마감은 오는 11일까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법인 인감카드 부정 발급 4200만원 빼내다

보성경찰, 6명 구속 3명 추적중

보성경찰은 31일 법인인감 카드를 발급받아 법인 계좌의 돈을 가로챘던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김모(32)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안모(32)씨 등 3명을 추적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1

일까지 전남·북 18개 등기소에서 위조한 법인 도장과 위임장 등으로 38개 법인인감 카드를 발급받아 이 가운데 4개 법인통장에 있는 4200여만원을 가로챘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해 얻은 정보로 법

인인감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등기소 직원이 의심하는 경우 법인인감등기부를 확인하자고 한 뒤 도장 모양과 법인대표 주민번호를 외우는 수법으로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이후 인감 도장·증명서, 위임장 등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 법인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받아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다 보니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없어 해지 후 받은 돈은 33만~2900만원으로 차이가 났으며 계좌에 남은 돈이 없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중고차 싸게 사주겠다" 수십억 가로챈 매매업자 쇠고랑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매매업자들에게 '싼값에 중고차를 사주겠다'고 속여 수십 억 원을 가로챈 40대 중고차매매업자가 절정형.

○"지난 31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손모(43)씨는 지난해 2월 순천시 장전동 A 중고차매매상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종업계 종사자인 이모(43)씨에게 "중고차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구입해 주겠

다"고 속여 5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을 가로챈 등 최근까지 중고차 매매업자 11명으로부터 11억 원을 받아 쟁긴 혐의.

○"손씨는 개업한 지 9개월 만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을 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손씨가 고의로 동료에게 접근해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연제동 광명·새한 2차 특별분양

지금의 기회

탁월한 생활인프라 & 미래가치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사이에 위치한 새한아파트는 79㎡, 방 3개와 욕실 2개 480세대의 고객선호도 100%로 구성된 중소형 아파트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남향 로얄층 1억8백만원 선착순(중·호 지정분양)을 합니다.

양산초등학교가 바로 위치해 있으며, 대형 롯데마트 입점 예정이며 지하철 2호선 예정지입니다. 교통 또한 빛고을로, 북광주 IC, 임랑출대로 등 접근성이 매우 좋고 이용도 편리합니다. 주위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개발의 프러미엄을 동시에 누리며, 시세보다 저렴하고 인기몰이 중 소형 아파트로 내집 마련 절호의 기회입니다.

3.3㎡당 400만원대 특가분양

중시 입주 대출 70% 가능, 선착순 중·호 지정

상무지구 10분

높은 수익률 임대사업자 환영

법안·양산지구 중심생활권 우수한 명문학교

임대사업자 환영

계약즉시 2,000만원 시세 차익/방 3개, 화장실 2개, 고객선호도 100%만족

특별분양 문의 (062)574-0079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고용직 결혼정보회사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대년재직) 광주서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 혼

의사, 변호사, 약사, 원예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재 혼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B10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